

## 123회 여름대공연 무대팀 인수인계서

무대팀장 62기 이현진

### 0. 시작하며

123회 여름대공연 무대팀장을 맡았던 62기 이현진입니다. 53회 신입생 워크샵에서도 무대팀장을 맡아 진행하였었는데, 때문에 무대팀의 기본적인 진행과정은 53회 신입생 워크샵 인수인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인수인계서는 기본적인 진행과정을 간략히 설명한 후 이번 공연에서 추가적으로 느낀 것과 전달하고 싶은 점들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무대팀 기본적인 진행과정

#### 123회 여름대공연 무대팀 주간 플랜

1주차: 자기소개 및 친해지는 시간, 무대팀의 목표 설정

2주차: 무대 스터디, 대본 분석 및 레퍼런스 찾아오기

3주차: 대본 분석, 무대 레퍼런스 및 아이디어 스케치

4주차: 각자 아이디어 구상 및 스케치, 서로 의견 피드백

5주차: 각자 아이디어 구상 및 스케치, 서로 의견 피드백, 초안 뽑기

6주차: 하나로 뽑힌 초안 디벨롭, 피드백 및 토론

7주차: 초안 디벨롭, 최종안 결정

8주차: 필요한 모든 재료 정리 및 조사/온라인 재료 구매

9주차: 대도구, 벽 제작/오프라인 재료 구매

10주차: 공연 주, 무대 제작

123회 여름대공연 준비는 총 10주차로 진행되었으며, 1주차에 계획한 무대팀의 주간 플랜은 이러하였습니다. 이번 공연을 마친 후, 다른 스태프 팀도 마찬가지이지만, 무대팀의 경우는 더욱 더 대본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준비과정의 초반부에서 대본분석을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랍니다. 123회 여름대공연의 경우 팀원 모두가 대본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대본은 기본적인 정보만으로도 무대를 만들 수 있기는 하지만, 대본분석을 깊이 있게 하고 만든 무대와 그렇지 않은 무대의 차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대본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대본분석을 끝내고 초안을 디자인하고 팀원들과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는 꼭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회의를 진행하길 바랍니다. 다음 공연 때 상황이 어떨지, 무대 팀원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무대팀의 회의는 그 어느 팀보다 오프라인일 때 효과적입니다. 온라인으로 나누는 디자인 회의는 소수를 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모두의 의견을 듣고 많은 디벨롭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회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디자인 회의는 누군가가 주축이 되고 조금 소외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 무대팀장이 회의를 진행하며 모든 팀원의 의견을 묻고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번 123회 여름대공연 무대팀은 팀장을 포함한 7명의 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무대팀 인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초반 회의에서 한 명, 두 명이 결석하는 것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되, 그 주차의 회의 내용과 다음주까지 생각해야 할 것을 불참한 팀원에게도 공유해야 합니다. 무대팀의 경우 후반부 제작 과정에서는 한 명이라도 빠지는 것이 매우 치명적이지만, 초중반 대 본분석과 디자인 회의에서는 빠진 팀원도 회의 내용을 숙지하기만 한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니 빠진 팀원에게도 빠르게 정보 공유 바랍니다.

무대팀 회의와 연출진과의 회의 끝에 디자인이 정해졌다면, 재료 구입 등을 빠르게 알아보길 바랍니다. 123회 여름대공연의 경우, 더 빠르게 디자인을 결정하고 재료도 더 빨리 알아봤다면 같은 비용이라도 더 적절한 재료로 무대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때문에 디자인을 최대한 빠르게 6,7주차에 결정하고 재료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시간도 충분히 갖길 바랍니다.

무대를 제작하는 날에는 거의 대부분이 철야작업일 가능성이 큼니다. 다만 다음 공연을 진행하는 무대팀의 경우 교내 극장에서 공연을 올릴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저는 교내 극장에서 진행해본 적은 없지만, 교내 극장은 철야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무대 제작 일정을 미리 공지하고 팀원들의 스케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작 당일이 되기 전에 어떤 순서로 무대 제작을 진행할지 계획표도 미리 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획을 짜더라도 보통 미뤄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유롭게 계획해주세요. 그리고 무대 제작 전에, 극장 사이즈에 맞게 미리 디자인에 관한 모든 사이즈를 기록해서 가는 것이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편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델링을 미리 진행했습니다.

무대 철거는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포토타임이 모두 진행된 후에 시작합니다. 철거 때는 많은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으며, 최대한 빠르게 철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없을 때가 많습니다. 빠른 철거를 위해서는 벽이나 천 같은 큰 구조물부터 빠르게 정리하고 밖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무대 제작만큼이나 철거 시에도 튀어나온 못이 많고, 다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철거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목장갑을 착용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2. 제반조사

123회 여름대공연이 끝난 지금, 동방에 남아있는 재료의 현황은 충분한 편입니다. 벽은 10개 이상 남아있으며, 반 벽도 다수 있습니다. 각목은 벽 아래 각목 박스에 매우 많이 남아있습니다. 각목이 그 박스에 모인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대 제작과 철거일에 그 각목 박스를 옮기는 게 꽤나 큰 일인데, 사실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무대팀에서는 각목박스 안의 각목들을 한 번 확인하여 쓸 수 없거나 못이 너무 많이 박힌 각목들을 따로 처리해서 각목을 좀 더 편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23회 여름대공연에서 다른 무대와 달랐던 점이라고 하면, 꽤나 높은 단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공연진에서 많은 돈을 들여, 단상을 만들기 위한 화물용 팔레트를 구매했습니다. 기존 4개, 새로 구매한 것 6개로 총 10개의 화물용 팔레트가 명륜 동아리방에 있습니다. 사이즈는 약 1m\*1m입니다. 다음 공연에서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재미있는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소중하게 사용해주시고 멀쩡하게 오래오래 남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화물용 팔레트 사용 시에, 팔레트 위에 사람이 올라간다면 합판을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화물용 팔레트와 연결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팔레트가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각목이 부족할 경우 울전 동방에 있는 3m60cm 각목을 가져다 쓰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사이즈 그대로 옮기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쓰시기 적당한 사이즈로 톱질한 다음에 명륜으로 옮겨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3. 무대 디자인에 있어서

다음 팀장을 하는 분께서 디자인 관련 전공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더라도 무대팀장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무대팀장은 무대 팀원들을 이끄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연출진, 다른 공연진들과 무대팀을 이어주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 함께 하나의 공연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123회 여름대공연의 경우 무대 팀원들이 많은 디자인을 냈었고, 많은 이유로 그 디자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대본의 특성상 동선을 만들 수 없는 무대이거나,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출진과 무대 팀원들 모두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대 팀원들은 계속 거절당하는 디자인에 불만을 가질 것이고, 연출진에서는 빠르게 디자인을 정해야 하는데, 몇 번이나 공연에 적합하지 않은 무대 디자인이 나오니 불만이 생길 텐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주 무대팀 회의 외에도 무대팀장을 포함한 무대 팀원들이 연습에 참여해야 합니다. 무대팀이 적어도 5명은 될 테니까, 매일 연습에 한 명씩은 참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면연습을 보고 초반부터 서로 생각하는 동선과 구도를 맞추어 나가야, 무대팀과 연출진 양 쪽이 함께 구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연출진과의 소통이 적었고, 연습과정을 많이 지켜보지 않은 탓에, 결국 최종 디자인의 큰 구도를 여름대공연 연출진에서 제안해줬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무대팀장이 연출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합니다. 연출은 공연을 총괄하고 매일 캐스트 연습을 진행하느라 정말 바쁘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 때문에 수동적인 무대팀이라면 초반에 서로 할 일을 하다가 마지막이 되어야야 동상이몽이었음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출은 정말 바쁘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무대팀에서 먼저 많은 연습 참관과 지속적인 연락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공연의 준비과정이 어느 정도 기간일지는 모르지만, 아마 10주일 것 같은데, 10주라는 시간은 정말 길지 않습니다. 무대 디자인 하나를 정하는 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 못했지만, 정말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초반부터 연습에 많이 참관하고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 4. 공연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저번 신입생 워크샵을 처음으로 123회 여름대공연에서 두 번째 무대팀장, 세 번째 무대팀을 맡았습니다. 매번 무대팀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저 혼자서는 해낸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주는 팀원들, 각자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스태프들, 그리고 매일 최선을 다해주는 연출진과 캐스트들 모두가 있고, 또 모두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그제서야 제 역할을 겨우 하나 해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공연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나 무대 때문에 고생하신 연출 이창기, 조연출 허은세 정준원, 조명팀장 천유진께 감사드립니다.